삼성전자 '미 투자 확대' 나설까

삼성전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수출 규제 등 통상전쟁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미국 생산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앞으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지대'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디지털타임스' 에 따르면 한국 안팎에서 압박을 받는 삼성전자의 상황에서 미국은 유력한 안전지역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따로 지목하며 소위 '러브콜' 을 보낸 만큼 세제혜택 등 상당한 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13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이라 당장은 추가 여력이 없지만, 이후에는 생산기지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투자 가능성으로는 가전·스마트폰 등 주요 세트 생산공장 건설을 꼽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세탁기 공장을 세운 만큼, 추가 생산기지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주지역은 지난 1분기 지역 기준으로 최대 매출(10조6,507억 원)을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요 시장이다. 최근 미국의 내수시장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고려 사항이다.

텍사스주 오스틴도 유력 투자지로 꼽힌다. 부지가 충분한 데다 현지에 구축된 연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는 퀄컴 등 주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요업체가 있는 만큼, EUV(극자외선노광장치) 라인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미국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유리한 요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만약 삼성전자가 미국에 주요 생산거점을 마련할 경우 일본이 여기까지 주요 소재·장비 수출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공세가 미국 현지 업체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의 공세가 일본을 겨냥할 수도 있어서이다.

임대료 급등에 쇼핑업체들 속속 폐장

미국 쇼핑몰에서 철수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반드시 전자상거래와의 경쟁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파이낸셜뉴스'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전가상거래의 급성장에 지난 2·4분기 미국 유통업체들의 쇼핑몰 폐점 속도가 9년래 가장 빠르게 진행됐지만 급상승하는 임대료와 업체들의 늘어난 부채도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들어 백화점 업체 시어스와 속옷업체 빅토리아스 시크릿, 의류 업체 샬롯 루스를 포함해 매장 7,400개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CBRE 연구이사 니콜 라루소는 10년전에 비해 임대료는 상당히 올라 유통업체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뉴욕 맨해튼과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지의 유통 매장 임대료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보다도 비싸졌다. CBRE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10년 사이에 53%, 마이애미는 46% 급등했으며 중소도시에서도 33%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입주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에 밀리면서도 임대료 부담율은 종전에 비해 두 배 늘어나 매출의 30%를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건물주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는게 절대 중요해 뗄어질 경우 대출을 받기 힘들어져 건물주들은 싸게 임대를 해줄 바에는 시장이 호전되기를 더 기다리는 것을 택하고 있다.

폐점은 건물주들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줘 새로운 입주 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운다. 코어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폐점 규모는 7,426개로 지난해 전체 합계인 5864개 보다도 많은 반면 신규 입주는 3,000개를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 북한 무선망 구축·유지 지원"

미국 정부가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미국 정부가 대 화웨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협상과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 23일 '매일경제' 에 따르면 우싱턴포스트(WP)는 전날 자체 확보한 화웨이 내부 문서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 과 제휴를 맺고 최소 8년간 북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이 때문에 화웨이의 관여를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스프레드시트(통계용 프로그램) 자료는 전직 화웨이 직원이 제공했으며 다른 이들이 제공한 문서 두 묶음도 이번 보도의 토대가 됐다고 WP는 설명했다.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미국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에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또한 서구 각국이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있어 화웨이를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배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특히 이러한 의혹이 미·중 무역협상과 미·북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화웨이는 WP의 코멘트 요청에 "화웨이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의 모든 수출 규제와 제재 관련법을 포함해 우리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의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고 밝혔다.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은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OC 전지역

NEW EMPIRE Realty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역시 !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젠트 로즈메리!

부에나 파크 $66만	부에나 파크 $65만	부에나 파크 $45만	라미라다 $65만	라미라다 $52만
방3/화2.5, 건평 약 1,900sf 아늑한 2층집 업그레이드, 높은 천장 HOA $25	방3/화2, 건평 약 1,300sf 밝고 아늑한 단층집 완전 리모델링	방4/화2, 건평 약 1,200sf 타운하우스 완전 업그레이드 낮은 HOA $180	방5/화3, 건평 약 1,800sf 넓은 단층집 완전 업그레이드 가까운 쇼핑, 공원, 학교	방3/화2, 건평 약 1,300sf 조용한 동네 2층집 가격내림 가까운 골프장, 쇼핑, 식당
라미라다 $58만	플러튼 $68만	플러튼 $64만	요바린다 $74만	요바린다 $62만
방3/화2, 건평 약 1,400sf 아늑한 단층집 깔끔한 조경 가까운 공원, 식당	방3/화2, 건평 약 1,300sf 편한하고 조용한 단층집 완전 리모델링 나무바닥	방3/화1,5, 건평 약 1,400sf 평화로운 단층집 많은 업그레이드 아름다운 정원	방3/화2, 건평 약 1,600sf 좋은위치의 단층집 새지붕 RV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방4/화2, 건평 약 1,700sf 멋진 단층집 완전 업그레이드 편리한 프리웨이, HOA $60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C.714.334.2292

* 팔고 사는 집, 언제나 신중함과 성실, 인내로 모십니다 * 학군 및 융자 상담
866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